

제6회 IAWQ(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5월 20일부터 23일 까지 4일간 약 20여개국 500여명의 참가속에서 서울의 Sheraton Walker Hill Hotel에서 열렸다. 이 번 학술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 중에서 최근 가장높은 관심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수질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16개국 225편의 논문과 약 450여명의 수질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종 처리 방법과 특히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인 영양소제거, 고도처리, 음료수, 침출수처리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논문 중 몇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외국 학회지에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필자는 첫 날 Technical Session D-room 의 진행을 맡았고, 개회식과 그 전후에의 참가자들의 모습과 뒤 늦게 회원등록을 하는 내 외국인들과 조직위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며 대회의 규모와 각 참가자들



## 인 반 기 사

# ASIAN WATERQUAL

## '97 참가기

박인보/최우정

국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대학원생

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으며, 각 나라에서의 수질에 관한 관심도를 느낄수 있었다.

### 학술발표 논문과 학술발표 일정

개회식 후 각각 4개의 방으로 나누어 1편의 논문당 20분당의 발표시간으로 발표되었다.

발표된 내용과 논문편수는 다음과 같고 각논문에 따른 국가별 등록수는 개최국 Korea가 198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59편, 대만이 26편, 태국이 13편등으로 발표되었다.

### Exhibition on Water Technology and Poster Presen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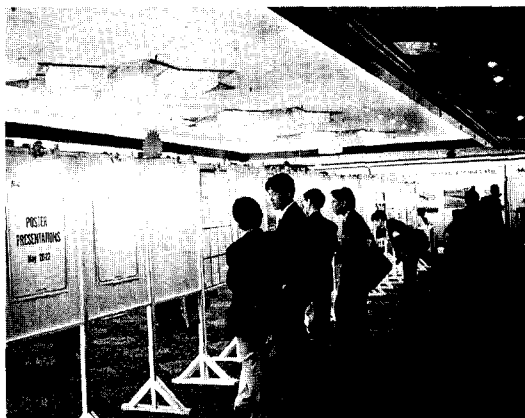
이번 학술회의가 다른 여러 행사에 비해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학술회의 기간동안에 Sheraton Walker Hill Hotel의 Sun-flower hall에 열린 Exhibition on Water



## 학술발표 일정표

주 제	총 편	발 표 일 정		
		5/20	5/21	5/22
영양소 제거	34	10	19	5
생물막 공법	12	-	-	12
수질관리	15	0	5	-
물리/화학처리	12	-	9	3
흡착기술	10	10	-	-
분리막 기술	10	-	5	5
음료수	10	10	-	-
침출수 처리	7	-	-	7
슬러지 처리	6	-	6	-
중수도	3	-	-	3
사례 및 하수관거	9	-	-	9
오존 처리	9	-	9	-
냄새/유지 관리	4	-	4	-
혐기성 처리	9	-	-	9
호기성 처리	9	-	9	-
기타 적용기술	12	-	10	2
독성 분야	3	-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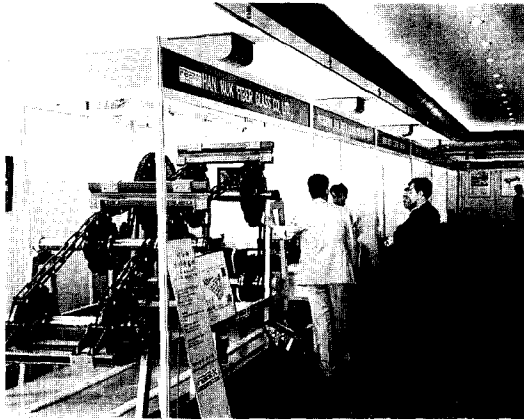
Technology and Poster Presentations이다. 여기에 참가한 기업들은 모두 한국 기업이며 행사 기간동안 자체개발한 기계를 홍보하였으며 특히 외국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볼 수 있었고 어느정도의 섭외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어느 학술회의보다 많았던 poster presentations은 논문발표자가



그 논문에 대한 요약적인 이론과 결과치를 나타내주었고, 이 같은 poster presentations을 통해 참가자나 그 밖에 초청자들에게 전반적인 발표내용을 알리고, 그 외에 논문발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여건상 발표를 할 수 없을 때 poster presentation을 통해서 그들의 논문을 개략적이거나 소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며 이에 수반된 각 나라의 대학이나 기업의 수질에 대한 열의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Exhibition on Water Technology and Displaying products

- Chung engineering CO, LTD.
  - water quality T.M.S(Telemetry System)
  - KMnO4 - Type COD Analyzer
  - Electromagnetic Flowmeter
  - Ultra Sonic Flowmeter



- UV - Type COD Analyzer
- TN, TP, TPN Analyzer
- Parshall Flume Flowmeter
- D.I. Corporation Engineering Division
  - UV System, Decanter, Ozone System, Leopold Block
- Dongmoon scientific company
  - DO Meter(YSI), Heavy Meter Analyzer(GAT)
  - Remediation Equipment(ORS)
  -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YSI)
  - Soil Test Kit(Palintest)
-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CO.
  - Book(Environmental Engineering part)
- Donglim material CO.
  - High Variety of Micro Organesms About Purification
  - Sorong Response Force about the Variation of Water of Quality
  - Less Producing fo Sludge
  - Capability of Operation of Operation of High and Low Density
- Hankuk fiber glass CO, LTD.
  - Non-metallic Sludge Collector System
- Hanmee CO, LTD.
  - HBR System
- Keangnam enterprises, LTD.
  -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for

#### Small Community

- In-Stream Water Purif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Close-to Nature River Improvement Techniques to the Lorean System
- Krofta korea
  - Krofta Supracell, Krofta Sandfloat SAF-BP
- Kuckdong kimotm CO, LTD.
  - Automatec COD Analyzer(VS-3951), Data Logger(D/L-1000)
  - Telemetry System , Operating S/W
- Samkwang aqua-clear, INC.
  - Fluidized BED TYPE BIOLOGIAL
  - Wastewater Treatment System Using SAC-Bio-Carrier
- Young-in scientific CO, LTD.
  - Colilert™ of IDEXX Laboratories Inc.
  - TOC Analyzer™ of Sievers

#### 그 외의 행사 일정

#### Welcome Reception

학술회의 시작 첫날 있었던 이 행사는 오후 7:00부터 9:00까지 Sun-flower hall에서 조직위원장의 간단한 이 행사를 위한 축배로써 시작되었다. 이 곳에는 초청된 환경부 직원들과 각 나라의 참가자들이 음료와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논문표를 들으며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었으며 학문적인 얘기뿐만이 아닌 서로 명함을 건내며 친분을 다지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몇명의 진행위원들과 식사를 하며 다른 학교 대학원생들과 서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이야기했고 그 중에 D-room의 사회를 보며 안면이 있었던 히로시마 대학의 대표로 논문발표를 한 Akira Yuasa와 잘 하지 못하는 영어로 잠시나마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수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문에 대한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가장 재미있었던일은 Australia에서 온 굉장히 식성이 좋은 중국 사람을 만나는데 영어를 쓰지 않고 종이에

한문으로 하나하나 써가며 우리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 친구는 중국말을 가르쳐주며 나중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그 행사를 마쳤다. 이 날의 모임은 필자 뿐만이 아니라 참가자전원에게 매우 유쾌하고 유익했다고 생각하며 이런자리를 마련한 조직위원회측에 감사사를 드리고 싶다.

### Korean night

이 행사는 학술회의의 시작 이틀째인 21일 오후 7:00부터 시작 하였으며 너무나 아름다운밤이었다.

모든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음식을 들며 한국전통 무용과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위해서는 학술회의의 등록비외에 입장료를 따로 받았으며 필자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곳의 분위기는 정말로 멋있었다. 녀를 잃고 우리것을 쳐다보는

외국 참가자들을 보며 너무나 떳떳했고 행복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 학술회의를 지켜본 느낌

필자가 ASIAN WATERQUAL '97 참가하여 느낀점은 우선 참가자 각각이 많은 참여의식과 열의를 가지고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열의가 좀처럼 식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학술회의장보다도 많은 참가자들이 발표논문에 귀 기울였고 각기 자국에 이익이 될수있는 자료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분야별로 나누어져있는 4개의 논문발표장을 돌아 다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 했던 일본인들을 보며 많은 느낌은 받았다.

영어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발표하는 모습이 처음 필자에게는 다소 어리숙하게 느껴졌지만 논문발표가 진행되면서 그 느낌은 사라지고 논문발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각각의 논문에 대한 질문도 일본참가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던것같다. 그 외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국학생이 유학을 가서 그 대학의 대표로 논문발표



를 하는 모습은 필자에게 무척새로운 일이었고 그 학생은 히로시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김덕진씨였다. 참 보기좋은 모습이었고 기억에 남아서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만날수가 없어서 무척 아쉬웠다. 또한 학술이라는 딱딱한 느낌보다 많은 만남과 이야기의 기회를 가질수 있었던 학술회의의 뒤의 행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내 외국인들의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보기좋았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지켜보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했고 앞으로 문제 해결방향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며,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와 같은 전문적인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토론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신 조직 위원회와 Kocnex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을 하고싶다.

### ASIAN WATERQUAL '99

7th IAWQ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가 1999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Chinese, Taiwan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quality
- Domestec sewage treatment and water quality
-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 Livestock farming wastewater treatment and reuse
- Sludge treatment, disposal, and reuse
-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 Innovative water and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ies
-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health-related issues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대된다. 필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7회 학술회의에도 참가하고 싶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될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며 나아가 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고 우정을 나눌수 있는 행사로 발전하길 바란다. ●



백유(伯兪)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리니 백유가 울거늘 어머니가 물었다. “이제까지는 매맞을 때 울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우느냐.” “예, 제가 잘못을 저질러 매을 맞음에 항상 아프더니 오늘은 어머니의 힘이 쇠약해지시어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옵니다.”

